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불란서로 망명해

이 사람이 영적 노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승리제단에 매일 나와야 구원이라고 외치지만 바쁘다고 빠지면 옛날 노아 시대 때에 방주에 타라고 그렇게 외쳤던 노아의 말을 안 듣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과 운명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공중 신즉 마귀의 아들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물세례 줄 때에 공중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공중 하늘에 있는 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지만, 마귀였다면 마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성경 말씀의 짝을 다 맞춰보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 고개를 넘어갈 때 공중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하고 부르니까 사울이 풀속으로 기어들어가 숨고는 '주여, 뉘시니까?'하고 벌벌 떨면서 물으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하는 소리가 공중하늘에서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로 예수는 하늘에 있는 신인 것입니다. 공중하늘의 신이 마귀신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쓰여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쓰여 있는 고로 마귀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마귀라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꾸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다 죽는 고로 죽는 열매를 맺으니까 예수는 마귀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공중하늘의 신이 마귀라고 쓰여 있으니까 마귀새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짚을 맞춰서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으면 이미 벌써 너희들에게 하늘나라가 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고 마귀 힘으로 내쫓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내 뒤에 이 세상 임금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 세상 임금이 구세주를 말하는 것인 고로 내 뒤에 구세주가 온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이실직고한 말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성혈과 성배 책의 내용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건 그 당시에 구세주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 재판 당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하고 물었을 때 '예, 내가 왕입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이 세상 임금이 내 뒤에 온다.'고 해놓고 재판하는 자리에서는 왕이라고 하면 안 죽일 줄 알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한테는 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무죄판결 했다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것은 강도질 한 사람만 십자가 매달아서 죽였는데 무죄 판결을 받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무죄 판결을 받아 그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파 교인들이 궁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라." 하고 데모를 했던 것입니다. 옛날 정치거나 지금 정치거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 그 비위를 맞춰줘야지, 비위를 안 맞춰줬다가는 왕권이 위협해지는 고로 백성들의 비위를 맞춰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죄 판결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는 없는 고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로마병정들에게 비밀리에 '너희들이 캄캄한 밤이 되면 예수를 불란서 나라로 망명을 시켜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영국에 이 사람이 가서 '성혈과 성배' 원문을 보니까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로마병정들의 호의를 받아 불란서로 망명을 해서 그곳에서 살면서 많은 후손을 남겼고, 84살에 죽어서 그 무덤이 불란서에 있고 런던에서 재판을 할 때에 판사들이 불란서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예수의 무덤을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서 재판기록에 첨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들이 판결을 하면 이 세상



구세주 조희성님

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고로 혼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판결을 일주, 이 주 미루게 되니까 대법원장이 불러가지고 '너희들, 왜 빨리 판결하지 않고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시간만 자꾸 보내고 있느냐? 빨리 판결하라.' 하고 재촉하는 고로 할 수 없이 신부들과 수녀들이 방정석에 짙- 차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판사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 습니다. 예수님은 불란서로 망명을 해가지고 84살까지 살다가 죽어서 그 시체가 지금 불란서에 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판결을 하니 신부, 수녀들이 까만 옷을 북- 찢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성혈과 성배 책을 본 목사들의 반응

그 당시에 신부, 수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죽어서 부활한 것으로 알았는데 십자가에도 안 달리고 불란서에 가서 84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불란서에 있는 예수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법정 증언대에 세워서 다 물어봤던 것입니다. '네 할아버지가 예수님이냐?' '예, 맞습니다.' '그럼 내가 몇 대 손이냐?' '내가 몇 대 몇 대 손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여기, 족보 책이 있습니다.' 하며 건네주는 족보 책을 받아

서 들추어보니까 다 사실인 고로 판사가 '맞다'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평생 구세주인 줄 알고 믿었던 예수가 잠놈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배신감에 신부 수녀들이 옷을 북- 찢고 바닥에 털벌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이 영국의 신문, 방송에 나가게 되니 '이 사실을 외국에 알리지 말라라, 영국에서의 혼돈으로 그쳐야지 전 세계가 혼돈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입을 다물게 해서 쉬쉬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성혈과 성배' 영어로 된 원문 세 권을 사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세 권을 사가지고 왔는데 누군가한테 다 주고 지금 나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국에 와보니까 영어로 된 성혈과 성배 책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마포에 있는 행림출판사에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교보문고에 내놨는데 기독교 목사가 그걸 보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책을 몽땅 사다가 불을 질러버렸던 것입니다. 그 책이 팔리면 예수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고로 그렇게 되면 목사들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후 우리 제단에서 행림출판사에 가서 나머지 육십여 권 가장 되는 책을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줬던 것입니다. 그 책이 없으면 거짓말했

다고 나를 또 공격할 때에 거짓말이 아니라 그 책을 보여줘야 하니 나한테 한권 갖다 주세요.

말세의 정의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이 사람이 신학 공부할 그 당시에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독교는 믿음이 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라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만 아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자체를 그렇게 간단하게 안 봤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특이 되어야 선물이 되는 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특이 되려면 안 죽게 되어야 선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틀림이 없는데 인간이 죽지 않는 은혜,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 사망의 신인 마귀를 이기는 이긴자의 영이 믿음이지,

장가 간 예수와 가롯 유다의 배신 동기

① 미국 하버드 신학대의 캐런 킹 교수가 로마 국제칼트학회에서 "예수가 마리아를 '내 아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고대 콤포터 파피루스 문서를 공개하였다. - 대개 혼인잔치에서 신랑 어머니가 하객을 대접하게 되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알았다면 예수는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 신랑이 된다. 거기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잔치집의 하인을 마음대로 부리는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요한복음 2장 참조).

예수가 장가 간 사람이 분명한 것은, 가나 혼인잔치 이후부터 그 제자들이 예수를 부를 때 '담배'라고 호칭하는 것이다(마26:25, 막11:21). 유대의 구전 관습법에 가서 나머지 육십여 권 가장 되는 책을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줬던 것입니다. 그 책이 없으면 거짓말했

그냥 보통 하나님의 영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통 하나님은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전부 마귀에게 빼앗긴 고로 마귀를 이기는, 마귀를 죽이는, 그러한 영이여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이긴자 구세주가 나와서 마귀를 전부 전멸시켜버리고 사람이 전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때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끝 말(末)자, 인간 세(世)자,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말세의 뜻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긴자 구세주가 나와 마귀를 전멸시켜버리고 인간을 전부 하나님을 만드는 고로 하늘나라가 되고 마귀세상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바로 하늘나라고 하늘나라가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2001년 6월 9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② 세상 사회에서도 사장이 제일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경리 과장을 맡기듯이, 예수가 온 전대를 베드로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가롯 유다에게 맡긴 것을 보아, 가롯 유다는 예수의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은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정직한 청년 가롯 유다가 음란죄를 짓는 예수를 로마 병정들한테 온 30년에 팔아넘겼는데, 그 숨겨진 전모를 요한복음 4장에서 찾을 수 있다.

날 12시경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단 둘이 연애하고 싶었던 예수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그의 열두 제자들 전부를 이웃 마을에 가서 빵을 사오라고 했다(요 4:6-8). 한나절이 지나 해질녘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일제히 "야, 참 이상하다!"라고 외치며 수상하게 여겼는데(요4:27), 이는 '돌아서 무슨 썸씽이 있었구냐'라는 뜻이다.*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10) 가나인을 정탐하다

(지나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대로 용서하겠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에게 불평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땅을 밟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렘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떠났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발길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바란광야의 꾸레이아(Qureiyah)로 돌아갈지니라."

《6장 40년의 광야생활》

(11)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만용을 부리다

민수기 14장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아카바만)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11)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만용을 부리다

출애굽 2년 4월(담무스월) 하순에 무장한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네겝 광야의 하스모나(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스모나를 떠나 웃바다를 경유하여 아브로나 부근의 예시온게벨(아카바)에 이르렀습니다. 예시온게벨을 떠나 홍해(아카바만)의 동해안을 따라 하갈(Hag)에 이르고, 하갈에서 동남쪽으로 행진하여 시내산(라오스산)의 신(Sin)광야까지 내려왔습니다.

출애굽 2년 5월(암월) 초순에 그들은 신(Sin)광야의 가데스(Kadesh; 거룩한 샘)에 진을 쳤습니다. 진을 친 그곳은 시내산의 동쪽에 위치하였습니다.

민수기 33장 30-36절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에게 진을 치고, 모세 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훌하깃갓에 진을 치고, 훌하깃갓을 떠나 웃바다에 진을 치고, 웃바다를 떠나 아브로냐에 진을 치고, 아브로냐를 떠나 예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예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바란광야의 가데스(꾸레이아)에 있던 성막을 70킬로미터쯤 서쪽으로 위치한 신(Sin)광야의 가데스로 옮겼습니다. 그 이후로 바란광야의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묘지 터로 변했고, 신 광야의 가데스는 가나안 입성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 광야의 성막에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

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었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이 심 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걸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혀 갔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었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사십 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사십 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그 사십 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와 말하였거니와 모여나를 기억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간다니, 그건 위험천만한 일이고, 제발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기에, 필경 당신들은 적에게 패하고 말 것이요,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달려들어 칼로 무찌를 것이요"

그들은 모세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칼로 무장한 채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호렘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나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산을 넘어 또 북진하여 호르마를 지나 아랏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해 서부의 산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인 아모리 족속이 벌 때 같이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칼을 들은 아모리 족속은 돌이켜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르마까지 쫓아 가면서 도륙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와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안젤라